

<로마서 1:16-17>

루터는 수도원에서
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.
하루 7차례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
죄를 지으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채찍질했어요.
성당의 28계단을
무릎의 피가 터지면서 오르기도 했어요.
그렇지만 그의 내면은 평안이 없었고
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.



어느 날 로마서를 읽었어요.

「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
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」 로마서 1: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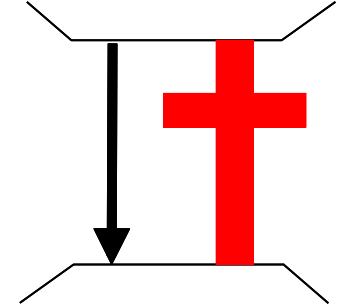
구원은 사람의 선행,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
예수님이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
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알았어요.

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

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. (창 2:7)
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. (로마서 1:28)
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해요.
하나님을 떠남으로 공허, 불행, 사망이 왔어요.

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.
예수님이십니다.
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.

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
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.



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
내 안에 하나님의 영, 성령께서 거하시고
나를 이끌어 주십니다.

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

구원 이후의 삶도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.
체험을 통해서,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.
믿음의 그릇이 넓어집니다.
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.

내가 복음을 **바** **기** **르** **느** 하지 아니하노니 이 **복** **음**은
모든 믿는 자에게 **기** **노**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
(로마서 1:16)